

도시철도 건설 공론화 두고 (2호선) 광주시-시민단체 '기싸움'

시민단체, 숙의형 여론조사 가닥

광주시, 시간·비용 문제 '부정적'
"침묵하는 다수 시민뜻 반영돼야"

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
공론화 방식을 두고 광주시와 시민단체
의 의견이 달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음
지 주목된다.

양측이 '공론화를 통해 건설 방식을
결정한다'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
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
진통이 예상된다.

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철도
2호선 공론화 방식을 내 달리는 요청에
대해 시민단체가 이날 오후 공론화 방식
을 시에 제안할 예정이다.

시민단체는 지난 4일에 이어 이날 오
후 대표자 회의를 열어 공론화 방식을 최
종적으로 결정한다. 이들은 공론화 방식으
로 시민 배심원제와 공론조사 방식을 혼합
한 형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.

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·
6호기 건설 재개 문제를 놓고 시행한 공
론조사와 같은 형태다.

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방법과

표본 추출 등을 논의하고 전문기관에 맡
겨 진행하는 '숙의형 여론조사' 형태다.

지역, 성별, 나이별로 무작위로 선정한
시민에게 도시철도 2호선 찬반에 대한
자료를 제공하고 질의·응답과 토론,
워크숍 등을 통해 지식을 쌓은 뒤 찬반
표결하게 된다.

이 방식은 중립적인 전문기관 선정과
표본 추출, 숙의 과정 등을 거치므로 기
본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된다.

이번 시민단체 대표자 회의에는 광주
시민단체협의회, 참여자치21, 시민플랫
폼 나들 등 '사람 중심 미래교통 시민모
임' 소속 단체 등 모두 20여개 단체가 참
석했다.

하지만 광주시는 신고리 원전 5·6호기
방식에 대해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 때문
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.

16년여에 걸쳐 논란을 거듭하다 민선
6기 막판에 저심도 방식을 확정한 것도
시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님을 강조한다.

특히 민선 6기에서 1단계 실시설계 용
역과 차량 제작·설계까지 추진하던 상황
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.

이용섭 시장도 지난 2일 취임 후 첫 기
자간담회에서 신고리 원전 5·6호기 건설
중단 여부를 결정했던 공론화 방식에 대

해 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
밝혔다.

이 시장은 "신고리 원전 5·6호기 공론
화 방식에 든 비용이 37억 원인데 그런 비
용을 들여야 할지 의문이다"며 "그런 과
정을 거치지 않고도 합리적 결정을 할 수
있다"고 말했다.

또 "광주혁신위원회에서도 도시철도 2호
선을 둘러싸고 찬반 토론을 다섯 차례 한
것도 공론화의 일환"이라고도 말했다.

광주시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식, 특히 침묵하는 다수
시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.

일각에서는 기존 저심도 방식대로 추
진하려는 광주시 입장과 노면전차인 트
램이나 '땅 위의 지하철'로 불리는 간선
급행버스체계(BRT)를 도입하려는 시민
단체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.

결국 '찬바람 불기 전에 결정하겠다'
고 한 이용섭 시장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
들은 뒤 어떤 공론화 방식을택할지 주목
된다.

광주시 관계자는 "시민단체의 공론화
안을 받아보고 나서 어떤 방식이 가장 적
합한지 판단해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
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방침"이라고 말했
다. /광주=봉채영 기자 bcy2020@metroseoul.co.kr



이성호 양주시장(중앙 좌측) 주재로 '민선7기 제6대 시장 공약이행 추진방안 보고회'를 개최하고 있다.

/양주시

양주시, 전철 7호선 연장·조기착공 추진

민선7기 공약이행 추진방안 보고

등 6개 분야 117개 과제이다.

주요 공약사업으로는 ▲전철 7호선의
옥정신도시 연장과 조기 착공, ▲GTX-C 노선의 양주(덕정) 연장 추진, ▲양주 테크노밸리 조성, ▲양주 청년센터 조성, ▲양주아트센터 건립, ▲VR테마파크 조성, ▲경기북부 비즈니스센터 건립, ▲스마트시티 복합센터 구축, ▲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등이다.

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3일에 걸
쳐 이성호 양주시장 주재로 '민선7기 제
6대 시장 공약이행 추진방안 보고회'를
개최했다.

이날

보고회에서는 민선7기 공약사항

의 이행계획 수립단계부터 시민과 소통하

고 공감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 추진

위해 각 공약별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

검토를 진행하고 세부 실천방안과 재원

확보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.

양주시의 민선7기 공약은 ▲더불어 잘

사는 복지 도시, ▲시민이 우선인 안전

도시, ▲희망찬 내일의 교육 도시, ▲새

로운 성장의 경제 도시, ▲모두가 누리는

문화 도시, ▲시민이 주인인 감동 도시

/경기 양주=고성철 기자

경기도, 상반기 혈세낭비 661억 줄였다

사업 1388건·9329억원 계약심사
조정률 7.1%…작년比 121억 늘어



경기도청전경

/경기도

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를 통
해 661억 원의 사업비를 조정했다고 11
일 밝혔다. 이는 지난해 상반기 조정액
540억 원 대비 121억 원 늘어난 규모다.

계약심사는 자체단체 등이 발주하는
공사·용역·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
으로 원가산정·공법적용·설계변경 적정
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
제거하는 제도다. 도는 상반기 동안 도와
시·군,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1,388
건, 9,329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

해 7.1%의 조정률을 기록했다. 도는 공
사비가 과다 책정된 1,245건 699원을 감
액 조정했다. 감액조정과 반대로 도는 부
실공사 방지를 위해 적정원이 이하로 설
계 된 여주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
229건은 38억 원을 증액 조정했다.

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"계약심사의
목적은 발주부서에서 기준과 달리 과다
산정 또는 과소하게 설계한 것을 기준에
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공정 제
외 및 설계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
하여 앞으로 현장 확인 중심의 계약심
사를 확대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
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"라고 말
했다. /김승열 기자 kimsy@

'2018 세계청년축제' 내일 팽파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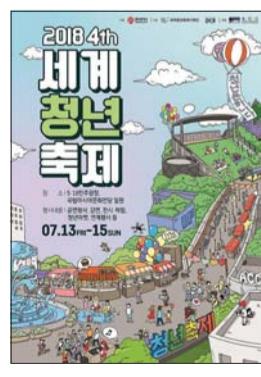
광주시 5·18민주광장 일원서

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기획하
고 실행하는 '2018 세계청년축제'가 13
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5·18민주광장과
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진다.

세계청년축제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
버시아드 대회의 문화행사로 시작해 청
년들의 주도적인 축제 기획과 현장 실행
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성장형 축제
로 이어지고 있다.

이번 제4회 세계청년축제는 '청년은
하나다'라는 주제로 현재 각자의 방식대
로 치열하게 혹은 즐겁게 살아가는 청년
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공감하며 응원
하는장을 마련했다.

공식·기획·연계·부대행사 4개 분야



로 나눠 총
21개의 프로
그램을 선보
일 예정이
다.

5·18민주
광장 주무대
에서는 이 시
대 청년들의
이야기를 뮤
지컬로 선보이는 개막퍼포먼스 '청년,
100인의 삶을 노래하다'를 시작으로, 방
송인 유병재 씨와 함께하는 '토크콘서트
-발칙한 청춘', 전국대학생페션연합회
'OFF'와 함께하는 런웨이 패션쇼, 전라도·충청도 대학생들의 끼 공연 '상상청
춘적쇼' 등이 기다리고 있다.

/봉채영 기자

축령산 자연휴양림 물놀이장 내일 개장

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

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본격적인
여름 휴가철인 오는 13일부터 8월 24일
까지 경기도 남양주 수동면 소재 축령산
자연휴양림 내 '야외 물놀이장'을 개장·
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.

'축령산자연휴양림'은 서울에서 약 1
시간 거리에 위치한데다 물놀이장 이용
의 경우 입장료만 내고 저렴하게 이용할
수 있어 수도권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알
뜰 휴가지로 유명하다.

이곳에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
이장,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목재 데크 쉼
터, 분수시설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들을
갖추고 있다.

/경기 남양주=고성철 기자

"황룡강변 10억송이 꽃 보러 오세요"

장성군 '노란꽃잔치' 새단장
행사장 '4개 테마정원' 연출

지난해 100만명에 가까운 관람객
을 모은 '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'(이
하 '노란꽃잔치')가 더욱 새로운 모습
으로 단장해 손님맞이에 나선다.

장성군은 올해 열리는 '노란꽃잔
치'의 윤곽에 대해 가을 초화를 더욱
다양화하고, 세대별·방문객별 맞춤
형 행사를 연출하며, 입장권을 통
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둘 방
침이라고 11일 밝혔다.

지난해 10월 13~29일 황룡강변 일
원에서 열린 '노란꽃잔치'는 황룡강
변에 10억 송이 꽃을 식재해 전국에
서 가장 긴 '꽃강'을 조성했다. 누런
용이 마을 사람들을 수호했다는 황룡
강의 전설을 스토리텔링화해 호기심
도 자극했다. 이로인해 장성군 축제
사상 가장 많은 관람객인 98만7340명
을 모으며 전국 축제로 발돋움했다.

장성군은 올해 '노란꽃잔치'를 대
한민국 꽃축제의 블로델로 만들기로
했다. 먼저 장성군은 지난해 축제 때
관람객들을 감탄시킨 백일홍과 황화
코스모스 외에도 핑크뮬리, 아스타,
송엽국 등 다양한 가을 초화를 식재

해 관람객들을 사로잡을 계획이다.
서양 억새나 분홍 억새로 불리는 핑
크뮬리는 특유의 동화적이고 이국적
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어려해살이
풀이다. 장성군은 백일홍, 황화코스
모스와 함께 핑크뮬리가 황룡강을 찾
는 관광객에게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
하고 있다.

행사장 연출에도 변화를 꾀했다.
지난해엔 황룡강변에 주제별로 6개
의 테마정원을 조성한 데 반해 올해
의 경우 4개 테마인 '햇빛정원' '꽃빛
정원' '달빛정원' '별빛정원'으로 행
사장 연출을 간소화했다.

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집중할 계획
이다. 지난해 '노란꽃잔치'의 경제적
파급 효과는 총 265억여원인 것으로
집계됐다. 올해는 관람객으로부터 입
장료를 받기로 했다. 여기엔 '비밀'이
숨어 있다. 장성군은 관람객이 입장
료를 내면 입장료 액수에 해당하는
바우처 상품권을 제공해 행사장에서
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.

유두석 장성군수는 "아직 축제 전
반에 대한 세부 계획이 모두 나오진
않은 만큼 주민과 지원들의 의견을
더 많이 반영해 더욱 완벽한 축제로
꾸며가겠다"라고 덧붙였다.

/전남 장성=봉채영 기자



지난해 10월 13~29일 황룡강변 일원에서 열린 '노란꽃잔치'는 100만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모으며 전국 축제로 발돋움했다.